

안전인의 행동철학 바쁘면 돌아서 가자



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고, 편안한 마음의 여유이다.

발빠르다고 토끼를 잡는 것은 아니다.

시골 할아버지는 뒷짐지고 해으름쫘머 어슬렁 어슬렁 산을 오른다.

산자락에 토끼 울 길을 미리 알고 올라가미를 만들어 놓는다.
몇 개 만들어 놓고 곰방대 물고 산을 내려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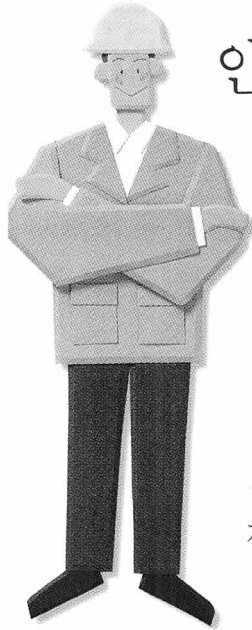
다음 날 토끼 서너 마리를 망태기에 지고 내려오는 것은 하루종일 토끼 뒤를 쫓아다닌 우리 조무래기들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였다.

“항상 문제는 내게 있다”라고 생각하라!

상대방을 가리켜서 비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.
상대방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의 수는 단 하나지만,
나머지의 손가락은 자기자신을 가리키고 있다.

“ 모든 생활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 ”

불안전한 행동은 재해발생의 원인



안 전하게 안전하게만 행동을 해도 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.

그런데 만일 불안정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재해더러 “나”를 비켜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

그러므로 내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재해를 비켜가야만 합니다.

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,
예컨대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
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
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.

안전은 하기로 했던 약속, 지키기로 한 규칙과 표준을 이행하는 것입니다.

대수롭지 않은 사고로만 알고 허겁지겁 달려온 그 아내의 등에는 아직 첫돌을 채 넘기지 못한 갓난아이가 우유병 젓꼭지를 문 채 보채고 있었고, 한손에 딸린 서너살짜리 계집아이는 제 어머니의 허둥거림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까만 눈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.

초점 잃은 동공들.....

안전대만 매었더라면.....

이제는 모두가 진정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만 할 것입니다.

바로, 나 자신부터 무재해 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.